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2월 1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나의 하나님”

- 최 홍 춘 -

저는 중국의 동북부지역 곧 일제강점기에 만주라고 불리던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깊은 산골임에도 구리, 니켈, 철광석 등의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일본인에 의해 잘 설계된 철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 마을인구의 거의 절반이 조선족이었습니다. 저의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모두 평안북도 출신으로 저는 이민3세에 해당됩니다. 중국공산당원 신분을 가졌거나 6·25전쟁참전 경력을 가진 집안 사람들이 활개치며 사는 데 비해 저희처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조선족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였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일부나마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어 생활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 또한 어느 정도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어머니는 15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교회를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래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따라서 이웃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를 때가 1989년, 저 유명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가 엉망이었고 뒷배경이 없는 저는 제1지망인 전자공학과 제2지망인 의과가 아닌 화학공업 분야의 대학교에 진학하여 '화학공업 기계 및 설비'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성적이 항상 우위에 있었기에 대학졸업 후에 중국에서 가장 큰 국영화학공업그룹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인맥이 두텁지 않고 술담배와 불의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항상 박봉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후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뜻하지 않게 면식이 있던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약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멀리 청두와 상하이 등에서 대만 상인을 도와 대나무 공예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많았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데다가 죽보가 한국에 있어서 부모님이 일찍이 한국에도 다녀오고 또 조부모를 모신 공로로 한국의 친척들에게서 경제적인 후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 집안이 대대로 일월성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서둘러 저와 약혼시킨 것이 저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일을 기회로 저는 중국 땅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침 중국 당국에서 '국영기업 부분민영화'라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남아도는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무일시중단'이란 제도를 운영하므로, 저는 이를 활용하여 2년간의 휴무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미국비자를 취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차선으로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일본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과 친척과 이웃들 모두 이런 저를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진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부와 권력을 쥔 집안의 자녀들이나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일본의 한 대학교로 편입되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던 대학시절의 선생님께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잠깐 귀국했다가 일본 유학을 간절히 염원하는 저의 소문을 듣고는 저를 만나서 배움에 대한

의지 등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노력과 도움으로 저는 드디어 큰돈 들이지 않고 초청장을 손에 쥌 수 있었습니다. 그 귀한 초청장을 근거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하튼 1999년 10월에 저는 처음으로 일본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일본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본인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왕이면 그 친구의 가정이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집안이었던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가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일본을 떠날 때까지 저는 그 친구 부부와 친분을 나누면서 조금은 외롭지 않게 지내며 일본에 대한 오해가 많이 불식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석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80년 전통의 금속정밀가공기업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즐겁지 않고 허무한 감정만 크고 깊어지며 나중에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가장 큰 염려거리는 중국에 있는 때 묻지 않고 착하고 순수한 누이동생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저는 놀랍고 기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중국어 연수를 위해 한국에서 온 신학생과 교제하는 중이며 동생도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저의 매부가 되었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 현재 중국 땅에서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이동생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제 몸에서 담대함이라고 할까, 마치 신비로운 에너지가 몸에서 뿜어져 나오듯 '평소에 날카롭고 또 집중을 잘하는 내 성격에 맞는, 무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볼 만한 일이 없을까' 하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석탄덩어리를 입으로 씹고 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심이 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급 건강식품, 특히 발효식품 개발에 뜻을 두고 맛과 향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식품을 제조하는 목표를 세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한 일본에서의 상황과 고독한 처지와 같은 조건이 오히려 제가 그 일에 집중하는 훌륭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막상 도전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자주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회복하는 유일한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자 슬럼프에 빠지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직장생활 10년을 채운 뒤 2년을 더 머물면서 일본열도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시작하여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살살이 여행한 다음에 한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그 끔찍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하는 곳이 바로 이 후쿠시마였습니다. 그때 저는 간신히 중국으로 피신해서 4개월 정도 머문 뒤 일본으로 돌아가 직장에 복귀하는 한편, 한국에 갈 생각을 하며 뒤처리를 서둘렀습니다. 전에 별생각 없이 일본 영주권을 받아 두었던 것이 한국비자를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짧은 시간에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직접 취득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1월,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언어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고 계획한 스케줄 대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말아보던 친척들과 관련한 잡다한 일들을 먼저 마무리 짓고 잠시 여행을 할 때 전철역 인근에서 구역장님의 전도를 받고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나올 때 어머니에게 한국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가서 남아있던 일들을 한 달 동안에 완전하게 마무리 지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획한 마케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제가 바랐던 대로 복된 주일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조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전도의 열매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케팅 작업이 한창일 때 바쁜 업무로 인해 하루 한 끼 정도만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자주 유명한 프렌차이즈 제과점에 가서 많은 빵을 사서 음료도 없이 식사를 대신하곤 하였는데,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아주머니가 하루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후 대화가 잦아지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 모두 다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개종하면 가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가 먼저 우리 교회에 출석하였고 후에 아주머니를 필박하던 남편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결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제가 하는 일에 꾸준한 도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익숙한 듯하면서 그러나 낯선 한국 땅에서, 제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리라'한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직전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우상화 작업과 기독교회에 대한 탄압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기도 중에 그대로 땅에 떨어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눈물을 흘려본 적이 두세 번 정도일까,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곧 눈으로 확인하는 증거 중 하나는 그렇게 많았던 세상 친구들이 모두 저를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크고 작은 바윗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대신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둘 저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에레미야 33:2,3) 하나님께서 이 성경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을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생활에 슬럼프가 없고 대신 마음이 항상 상쾌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성큼 다가온 오늘의 현실을 뚜렷이 인식하게 된 고로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며 매일 신령한 행복감으로 충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제가 원치 않았던 '화학기계 공업 및 설비(플랜트)'를 전공하여 쌓은 지식이 오늘 제가 일하는 식품관련산업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기반지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주일에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즐거움까지 누리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 저의 모든 일이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4단원 :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제26과) 성령님의 상징

- 본문 : 사도행전 2:1-4
- 요절 :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행 2:2-3)
- 찬송 : 172장(새찬송가 183장), 173장(새찬송가 184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①바람 ②호흡 ③불 ④비둘기 ⑤인 ⑥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성령의 상징 그 자체가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나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지만 바람이나 비둘기 그 자체가 성령님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 상징으로 계시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바람

예수님은 밤에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8)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람의 임의성과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성령님의 주권적이며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 견주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심은 인간적인 조건에 간섭 받음이 없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며,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은 인간의 이치로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또 바람은 태풍이 되어 강한 위력을 발휘함과 같이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능력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세례 받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호흡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창 2:7), 이는 사람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뜻합니다(인간의 영혼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닌 점에 유의할 것).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가운데 서서 생기(生氣)를 향하여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생기가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하니 생기가 불어와서 골짜기의 뼈들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였습니다(겔 37:1-10). 여기서 생기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육체의 생명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사 4: 4)고 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즉 불이 온갖 오물을 태워버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회개케 하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불이 뜨거움을 갖고 있듯이, 성령님은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므로 성령세례를 받은 성도는 미지근한 신앙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라고 하였습니다.

4. 비둘기

순결하며 온유하며 평화로운 새인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마 3:16,17). 누가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하였습니다(눅 3:22).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이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행 10:38).

성령님은 성도들이 순결하고 온유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5. 인(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인(인)을 치십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인)을 치는 행위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받은 바 구원의 불변함과 약속된 천국의 기업의 확실함을 보장받았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6. 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정결케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8)고 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요 7:39)이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 그의 영혼에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성령님의 물같이 씻기시는 역사로 인하여 성화되어 가며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에 대한 상징은, ①기름(눅 4:18, 고후 1:21) ②비(욥 2:23)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성령님을 일상적인 사물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